

# 韓國의 傳統마을 - 河回

本稿에 수록된 내용·자료는 金容稷 글 「安東河回마을」(悅話堂)中에서 引用·재편집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하회(河回)는 낙동강 기슭에 자리를 잡고 이루어진 마을로, 행정구역으로 보면 安東郡 豊川面에 속한다.

영남 북부지방에서 하회라면 널리 그 이름이 알려진 大處 巨村에 속하며, 낙동강이 완만한 흐름을 이루며 마을 앞을 감돌고 있어 하회는 풍성한 물줄기를 앞에 둔 마을이다.

그 지형에 따라서 하회는 太極形·蓮花浮水形·다리미형으로 일컬어져 왔다. 여기서 태극형이란 하회의 산수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마을을 굽어볼 수 있는 봉우리나 언덕에서 살피면 하회를 감도는 뿔부리가 태극의 선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북동쪽에서 흘러와 서남쪽으로 돌아가는 낙동강도 그와 같다. 그래서 일찍부터 하회는 山太極·水太極의 고장으로 일컬어져 왔다. 한편 연화부수형·다리미형 등의 호칭은 취락을 이룬 땅 모양에서 온 것 같다. 실제 하회는 동서가 길고 남북이 짧은 타원형의 마을이다.

그것을 공중에서 굽어보면 언뜻이나 다리미에 비유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地勢로 보면 하회는 동쪽에 높은 봉들이 있다. 그 주봉에 해당되는 것이 花山이다. 태백산맥의 지맥을 이루고 있는 이 산은 그 높이가 해발로 271m가 된다. 이 일대의 주산구실을 하는 산으로 그 기슭에는 西厓 柳成龍의 학덕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屏山書院이 있다.

한편 화산은 낙동강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서남쪽으로 흐른다. 어찌보면 그 줄기는 하회를 멀리서 감싸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한편 하회 앞을 흐르는 낙동강은 특별히 花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화천의 푸른 물 건너에는 한 줄기의 산맥이 바싹 닳아서 있다. 이 줄기는 영양 日月山의 지맥으로 전한다. 그

줄기에는 屏山과 圭峰·遠志山 등 높은 봉우리들이 솟아 있다. 이 봉들은 모두가 그 자락을 강물에 드리우며 철따라 꽃과 싯록·단풍의 경관을 선물한다. 뿐만 아니라 하회와 화천 사이에 펼쳐진 강기슭도 이 고장의 풍치를 돋구어 주는데 없지 못할 요소들이다. 화천은 그 기슭에 회고 깨끗한 백사장을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백사장이 끝나는 자리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들이 이어진다.

훌륭한 자연에 인간의 손질이 가해짐으로써 금상첨화격이 된 고장이다.

일찍 이 마을을 차지하고 世居해 온 사람들은 豊山 柳씨들이다. 풍산 유씨가 하회에 살게 된 것은 7 대째에 해당하는 典書公 柳從惠때부터다.

그 이전 이들 일족은 풍산 上里에서 살았던 것 같다. 이렇게 유씨들이 터를 잡기 전까지 하회가 빈 터로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에 앞서 하회에는 이미 許씨와 安씨 등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선주민은 뒤에 하회를 찾은 유씨들에 의해 점차 쇠퇴되어 갔다. 그리고 유씨의 동족 부락으로 바뀌면서 하회는 비로소 대저 거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하회에 世居한 후 얼마 안되어 유씨들에게는 벼슬길이 터졌다. 벼슬길에 오른 인물 중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인물은 서애 유성룡으로 조선조 선조 때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나라가 대전란에 휩쓸렸을 때 나라를 이끌어난 재상이다.

하회마을은 서애와 같은 대정치가 명재상의 출현에 힘입어 더욱 그 빛이 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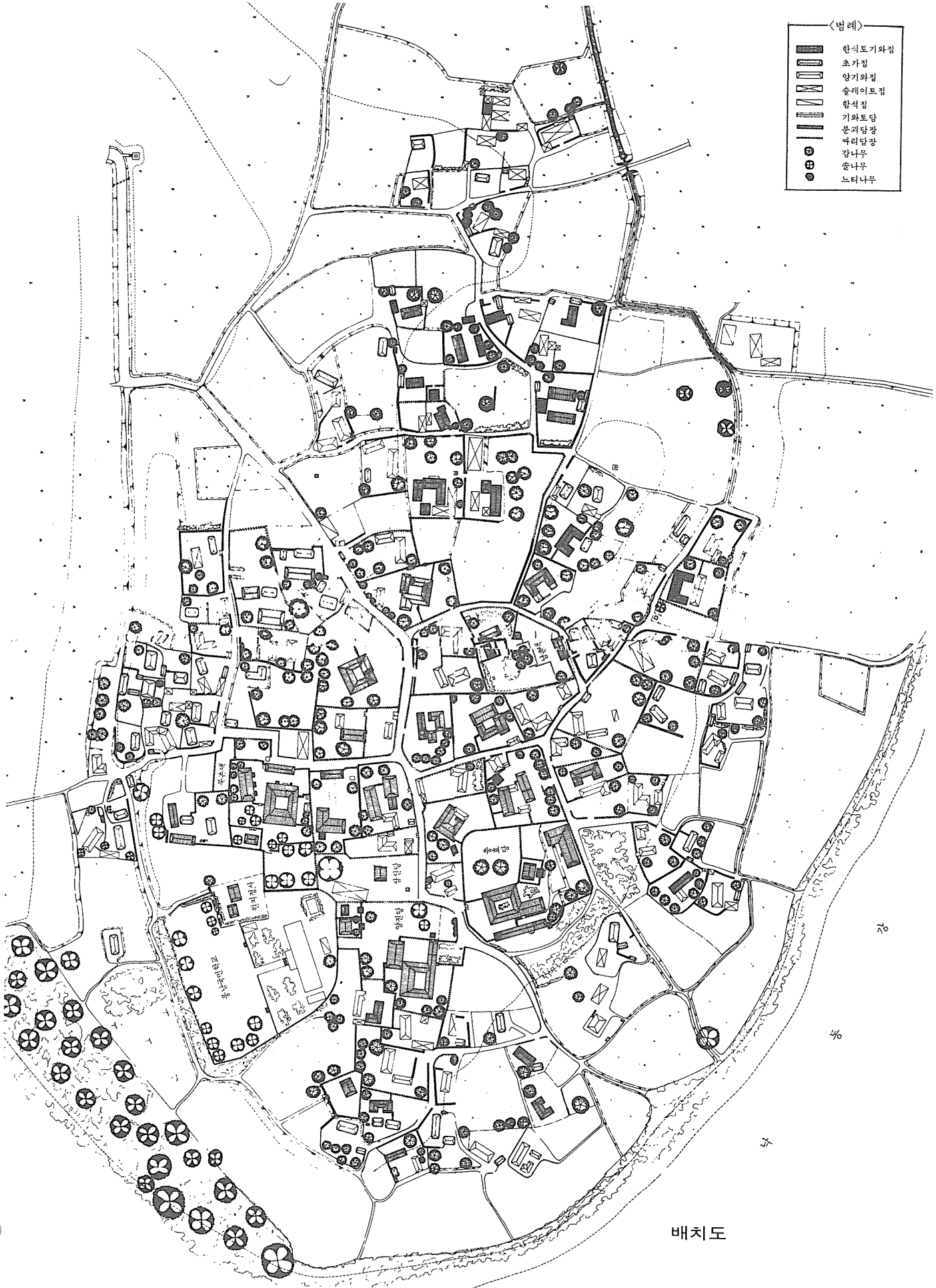
하회에 들어서서 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 여러집들을 살펴 보노라면 순응의 원리가 거기에 그대로 지켜진 것을 알게 된다. 이 마을의 많은 건축

들은 땅 모양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면서 지어져 있다. 햇볕 바른 터전으로 앞에 차폐물이 없는 경우 건축물은 남향으로 놓여 졌다. 그러나 이 마을의 건축물 가운데 더러는 서향도 있고 동향도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몇 亭閣들은 북향이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다른 坐向의 구조물에서 우리는 한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다. 그것이 어떤 건축물이든 산이나 언덕을 배후에 두고 그 전면이 강을 향해 있다는 점이다. 하회의 집들이 이렇게 낙동강을 향해 놓여 있는 까닭은 명백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嶺南 북부는 일종의 분지형으로 내륙 지방이다. 이 지방은 그리하여 여름이 유난히도 길고 무더운다. 이 무더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생각된 것이 시원한 강물을 향해 대문을 내는 건축 방식이었다. 자연을 이용할 뿐 그것을 거스르지 않는 한국인의 슬기가 이 마을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살아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유형별로 보면, 하회의 건축물들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일상 우리가 기거 생활하고 그 부대시설을 곁들이고 있는 집들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하회의 많은 집들은 기와로 이어져 있다.

이것은 이 마을이 오랫동안 누려온 생활의 정도를 말해 준다. 그리고 이 기와집(瓦家)들 사이사이에는 이 역시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草家들이 섞여 있다. 초가의 노란 빛깔에 기와의 푸른 빛깔이 배합되면서 하회는 그 지붕들부터가 조화의 묘를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하회를 말할 때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여러개의 書堂과 亭子·樓閣들이다. 앞에서 이미 밝혀 졌지만, 조선왕조에 들어선 후 하회



- <범례>
- 한식토기와집
  - 초가집
  - 양기와집
  - 슬레이트집
  - 합석집
  - 기와토담
  - 분리담장
  - 석리담장
  - 감나무
  - 순나무
  - 느티나무

배치도

는 정통적인 사대부·선비의 마을로 성장해 왔다. 그리고 선비가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글을 읽고 深思默考, 인간과 우주를 생각하며 논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기능을 지닌 공간이 필요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느 마을이 흔히 그랬던 것 처럼, 하회에도 대소 여러개의 서당과 정각들이 세워진 것이다.

민속신앙을 위한 구조물은 하회에 세개가 있다. 그 하나는 上堂으로 불리는 서낭당이다. 이 서낭당은 마을 뒤 花山 중턱에 위치해 있다. 본래는 기와로 지붕이 이어졌다고 전하는데 지금은 짚으로 덮혀져 있고 벽은 토담이다. 또한 이 밖에도 하회의 서낭당은 마을 입구 큰 고개와 작은 고개에 두개가 더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는 서낭당만 너댓개가 있는 셈이다. 상당의 대(對)가 되는 下堂은 마을 앞 花川 가에 있다. 하당은 그 다른 이름이 '國師堂'이다. 이 신당의 신격은 '하당 서낭님'으로 불리워진다. 상당과 같이 하당 역시 짚으로 엮어진 지붕에 벽은 두 면이 토담이며 한쪽이 판자다. 그러나 그 구조가 상당의 경우보다는 좀 개방적이다.

이것은 상당이 산허리에 위치한 데 대해서 이 신당이 트여진 들판에 세워진 까닭이 아닌가 짐작된다.

### 1. 주택·민가 및 기타

연꽃모양으로 되어 있는 하회는 그 가운데쯤에 남북으로 뻗은 저지대의 띠가 형성되어 있다. 이 띠를 사이에 두고 마을이 이분되는 듯 보이기도 한다. 흔히 이 띠의 아랫쪽에 위치한 마을을 南村이라 하고 그 반대되는 자리에 위치한 마을을 北村이라고 부른다. 한창 때 하회는 남촌과 북촌이 합해서 200여호가 넘는 큰 마을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상당수의 집들이 솟을대문과 행랑채·사랑채·안채를 갖춘 저택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 규모로 볼 때는 이 마을의 모든 가옥이 평가·기술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양진당과 충효당, 박재윤 소유의 초가, 북촌댁, 주일재 등을 택하기로 한다.

그 까닭은 어느 모로 보아도 이들 가옥이 하회의 가옥들을 대표하고 있

기 때문이다.

● 養眞堂-충효당과 함께 하회를 대표하는 양대저택으로 그 위치가 조금 높은 데 있는데도 집안에 샘이 솟는다. 또한 그 向도 이른바 子坐午向인 남향이다. 집은 채는 □자 형의 안채와 그 북쪽에 위치한 一자 형의 사랑채 그리고 동쪽으로 역시 一자형의 행랑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들 세건물은 평면상 모두 연결되어 있다. 다만 사랑채에서 마당을 건너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당만은 따로 자리잡고 있다. 행랑채의 맨 오른쪽 끝 동쪽 끝은 온돌방이며 그 다음이 외양간이다. 그 광과 외양간은 대문에 연결된다. 대문은 솟을대문에 그 높이와 넓이가 상당해서 거기 어울리게 써붙인 立春榜이 이 집의 가세를 말해 주는 것 같다.

대문간 왼편으로 연결된 서쪽 역시 온돌방이다. 그리고 이 방에 불을 때도록 아궁이가 붙어 있는 방만한 크기의 부엌이 있고 그것에 이어서 마루와 방이 하나씩 있는데 각각 2칸씩이다. 그 방과 마루 다음에 중간문이 있어 안채와 통하도록 되어 있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가운데 마당을 격해서 사랑채가 위치한다. 이 사랑채는 정면 5칸과 측면 2칸 곧 10칸의 크기로서 여기에는 6칸 대청이 있다. 이 6칸 대청에 연결해서 2칸인 사랑방이 있다. 그리고 그 왼편, 곧 서쪽 끝에 각각 한칸 크기의 방 두개를 놓았다. 안채는 서쪽 귀에 4칸짜리 커다란 부엌을 두었고 그 오른쪽에 정면이 2칸 측면이 한칸 반인 안방이 있으며 안방과 나란히 한칸 반 크기의 온돌방이 연이어 붙어 있다. 안방 전후면 양쪽에는 폭이 반칸인 뒷마루가 각각 달려 있다.

한편 안방 오른쪽, 곧 동쪽에는 역시 정면 2칸·측면 2칸의 넓은 마루가 놓여 있다. 이 마루가 곧 안채의 대청 구실을 하는 셈이다. 이 대청은 다시 한칸 남짓한 건넌방에 연결된다. 그리고 이 방 다음에 한칸으로 이루어진 마루가 있고 그것이 사랑채에 연결되고 있다. 양진당의 사당은 대소 두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 하나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큰 사당이며 다른 하나가 정면 2칸 측면 한칸의 작은 사당이다.

양진당의 구조-양진당은 사랑채와 안채의 기단양식이 조금씩 다르다.

사랑채의 기단은 막돌이지만 바른층 쌓기에 가깝게 시공되어 있다. 그러나 안채는 막돌허튼층쌓기 기단으로 시공되어 있는 것이다.

양진당의 사랑채는 비교적 높은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기둥머리에는 주두를 놓아 무익공식으로 처리되어 있다. 간살은 오량이다. 처마는 훑쳐마로서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다. 대청전면과 방에는 띠살창호를 달고 측면과 후면에는 골판문을 달았다.

또한 사랑채의 전면 뒷마루는 계자 각난간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측면과 후면에는 난간이 없다. 안채는 막돌초석을 놓고 모기둥을 세웠다. 그러나 여기서도 전면 네개만은 두리기둥으로 되어 있다.

도리는 굴도리며 장여가 받치고 장여에는 소로받침을 두었다. 안방의 전면기둥에는 장대로 시렁이 매어져 있다. 물건들을 얹어 둘 수 있도록 꾸며진 것이다. 담장은 토담으로 그 위에 한식 기와지붕이 얹혀 있다. 담장에 돌이 쓰여지지 않은 것도 이색적이다. 이것은 양측에 판자를 대고 그 속에 반죽한 진흙과 짚을 넣어서 압력을 가해 다져서 이루어진 담장이다. 영남 북부지방에서 자주 발견되는 독특한 담장이라 하겠다.

사당은 장대석기단에 막돌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도리는 굴도리다. 그리고 장여에 소로받침을 두었다. 사당의 처마 역시 훑쳐마로 맞배지붕이다. 일반적으로 양진당은 실용적인 점에서 다음에 거론하게 되는 충효당이나 북촌댁에 뒤진다. 양진당의 이런 점은 그 건축년대가 비교적 오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건축양식이 고려시대의 것을 모방했거나 또는 조선조 초기의 것을 답습했다면 이 집은 실용성보다 일종의 관습성에 지배되었을 공산이 크다. 어쨌든 양진당은 하회에서 으뜸가는 古屋에 속하며 현재 보물 306호로 지정되어 있다.

● 忠孝堂-보물 414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집은 남촌을 대표한다. 남북이 조금 길고 동서가 그 율 정도가 되는 사각형 터전에 행랑채와 사

랑채 안채·사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행랑채는 사랑채의 중심선과 같은 위치에 솟을대문을 두었다.

솟을대문 오른쪽이 남쪽으로 거기에는 같은 크기의 방이 3칸 그리고 좌측에는 외양간과 광들이 놓여 있다.

사랑채는 정면 6칸과 측면이 2칸으로 왼쪽 북쪽에 사랑방과 침방이 있고 중앙에 사랑대청이 있다. 사랑대청 오른쪽에 작은 대청과 건넌방이 꾸며져 있으며 그 옆인 사당과 西廡의 기념관인 永慕閣 사이에는 꽤 넓은 마당이 있다. 이 뜰에는 고목 세 그루가 많은 가지를 달고 있어 그 연륜을 말해 준다. 안채는 좌측구석에 부엌을 두었고 부엌 우측이 정면 3칸 측면 한칸 반의 커다란 안방이다.

안방 우측으로는 4칸 크기의 대청이 있는데 이 안방과 대청은 두드러지게 높은 동발로 받쳐 있어서 얼핏 보면 누각에 오르는 느낌을 준다.

안채의 이런 구조는 이 일대의 기후를 감안한 건축설계의 결과로 짐작된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영남 북부 내륙지방의 여름은 무난히도 무덥다.

무더위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된 것이 충효당 안채를 높다랗게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사정은 북촌댁의 경우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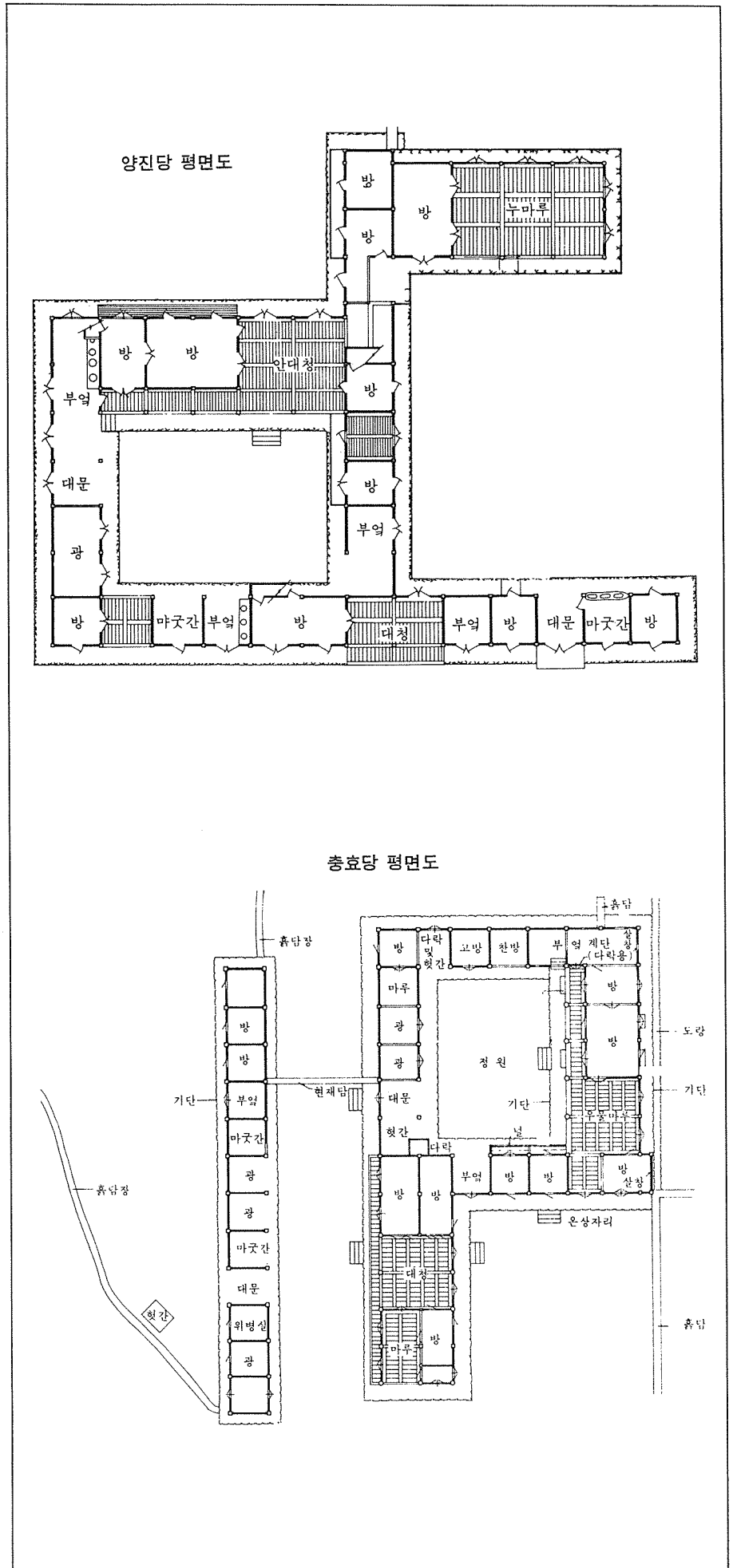
안채의 대청 우측에는 뒷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고 그 앞에 한칸 크기의 작은 마루를 두었다. 그리고 그 앞에 방 2칸이 있어 사랑채와 연결된다.

사당채는 몸채와 방향을 달리하여 남향으로 놓여 있다. 정면이 3칸 측면이 2칸으로 되어 있고 정면에는 三門이 세워져 있다. 여기서 삼문이란 中門과 東夾門·서협문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삼문은 大夫 公卿의 집이 아니면 세우지 않는다.

충효당의 사당이 유독 삼문을 가진 데는 그 까닭이 있는 것 같다. 이 사당에 奉祀된 神位 가운데 한 분이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이며 의정부 영의정을 지낸 서애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충효당의 구조-사랑채의 기단은 間知石쌓기에 장대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 높이가 꽤 높다.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도리는 남도리로 되어 있으며 장여



에 소로받침을 두었다. 간살은 양진당과 같이 五樑이며 흘쳐마에 팔작지붕인 점도 동일하다. 전면과 측면에 계자각난간이 가설되어 있다. 방에는 띠살과 골판문 덧창호를 달았다.

안채 또한 간지석 쌓기 기단 위에 막돌초석이 놓여 있다. 이 간지석 쌓기 기단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도 있다. 조선왕조 중기의 건축술로 보아서는 향리의 민가까지에 간지석 쌓기 기단이 나타나는 예는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충효당의 간지석 쌓기 기단은 보수공사 때의 개작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충효당의 안채 대청에도 두리기둥이 정면에 세워져 있다. 그러나 나머지는 네모기둥으로 되어 있고 도리는 납도리이다. 장여가 이를 받치고 있으며 소로받침을 두어 기둥머리에 얹은 檐遮와 같은 部材로 떠받친다. 기둥머리는 昌枋으로 묶여져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方形的 花盤을 두어 장여를 떠받치고 있다. 충효당의 안채 역시 오랑의 간살이다. 동자기둥과 마루대공에도 첨차와 같은 부재를 두어 소로를 받쳤다. 그리고 이 소로가 다시 도리 밑의 장여를 받치고 있는 것이다.

처마는 흘쳐마이고 맞배지붕 형식이나 습閣마루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방 전면에는 띠살창호를 달고 측면과 후면에는 판장문을 달았다. 건넌방 앞에 난간이 가설되어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한편 충효당 남쪽 사당 앞에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서애기념관으로 새로운 건물 永慕閣을 세웠다. 여기에는 국보 132호로 지정되어 있는 懲忠錄 이하 보물과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다.

● 朴在潤소유 초가-이 집은 전체가 초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의 격식을 갖춘 문간채와 안채·헛간 등을 지닌 보기 드문 집이다.

문간채는 一자형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이것은 이 건물이 사랑채에 해당되는 것임을 말해 준다. 또한 대문 우측에도 방 한간이 있는 바 이것은 문간방이다. 안마당에 들어서면 좌우에 장방형 평면의 한간씩인 헛간채가 각각 하나씩 세워져 있다. 안채는 정면이 3칸, 측면이 2칸으로 겹집이다. 즉 원편에 1칸 크기의 건넌

방이 앞뒤로 연이어 놓여져 있다.

그리고 그 옆 우측 뒤에는 마루 한칸, 그 앞에 작은 방이 한칸이다.

안방은 이 마루 우측에 한간이 채 못되는 크기로 꾸며져 있다. 부엌이 그 앞에 있으며 그 옆은 커다란 광이다.

박재윤소유 초가의 구조-문간채의 기단은 막돌허튼층 쌓기로 되어 있다.

막돌초석을 놓고 기둥은 모기둥(方柱)이다. 벽체는 흙벽이며 방에는 띠살창호를 달았다. 안채는 토단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이 집 안채의 두리기둥은 물론 아람드리가 아니다. 안채 방에는 띠살창호와 用字窓을 달았다. 그리고 부엌에는 판장문을 달았다.

헛간들은 토단 위에 흙벽을 쳤다. 일부 두리기둥을 세우고 초가지붕을 얹었으나 문짝은 없다. 이 초가는 그 규모로 보아서 조선조 시대의 일반민가가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 격식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

● 北村宅-이 집은 위치로 보아서 북촌의 중심에 위치한다. 또한 지금 그 원채가 소실된 南村宅과 함께 한때 家勢가 하회 전통을 대표할 정도로 유명했다. 그리하여 아흔 아홉간의 대저택을 꾸렸는데, 하회를 둘로 나누어 북촌·남촌으로 부르는 호칭도 여기서 비롯됐다. 그 전에는 아랫마을·윗마을로 구분했을 뿐 북촌·남촌의 호칭은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남아 있는 건물들은 대문간과 사랑채·안채로 이루어진 몸채 그리고 별당채와 사당채 등이다. 대문간채는 정면 6칸·측면 한간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대문이 위치한다. 대문 옆은 광들이다. 몸채는 사랑채와 안채가 대청으로 놓여 있다. 그리고 한채로 연결되어져 口자형 평면을 이루어 낸다. 사랑채는 다시 중문을 가운데 두고 왼쪽으로 방 한칸, 마루 한간이 있다. 그리고 전면에 폭 반간의 띠마루를 두어 오른쪽 방들과 연결된다.

오른쪽에는 사랑방 2칸과 방 한간이 대청을 사이에 두고 꺾이어서 지어져 있다. 이 작은 사랑방 옆은 또 다른 중간문이 된다. 그리고 별당 앞을 통해 중문을 들어서면 안채 오른

쪽이 나온다. 이것을 꺾어 돌면 북쪽으로 안채 전면에 나서게 된다.

안채는 사랑 대청과 대각선의 위치인쪽에 부엌을 꾸렸다. 오른쪽에 4칸 長方의 안방이 있고, 이어서 사랑채에 비해 월등하게 큰 4칸의 대청이 놓여 있다. 대청 건넌편이 2칸 크기의 건넌방인데 이들 방과 마루는 모두 一자로 꾸며졌다. 그 전면이 반칸 폭의 띠마루다. 이 띠마루는 안채 건넌방 맞은편까지 연장된다. 거기에 좁은 마루가 꾸며졌으며, 다시 방한간이 놓여져서 그것이 중문간에 연결되는 것이다.

부엌 좌측은 서쪽이 되는데 여기는 모두 광이다. 물론 양진당이나 충효당에 비해 광이 차지하는 면적이 눈에 띄게 큰 것이 이 집의 특색이다. 이것은 이 집의 살림살이에 쓰이는 물량이 그만큼 풍부해서 유달리 넓은 저장소가 필요한 데 연유했을 것이다.

別堂채는 一자형 평면에 정면이 6칸·측면이 2칸이다. 여기에는 방과 대청이 각각 절반씩을 차지한다. 방이 남쪽에 놓여 있고 대청이 북쪽에 놓여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것은 겨울의 保温과 여름의 피서를 고려에 넣은 결과인지도 모른다. 또한 이 별당채의 방과 대청 전후면에는 반칸 폭의 띠마루가 놓여졌다. 사랑채는 별당과 안채 사이의 작은 문을 통해서 나간다. 사당채는 정면 3칸·측면 2칸으로 된 독채다. 그 둘레에 담장이 쳐져 있고 문은 三門이다.

북촌택의 구조-집채의 전반부인 사랑채 기단은 간지석쌓기로 되어 있다. 그 위에 네모뿔대의 다듬은 돌초석을 놓고 기둥은 네모기둥이다. 양진당이나 충효당처럼 두리기둥을 쓰지 않은 까닭 역시 실용성을 고려에 넣은 결과로 생각된다.

도리는 양진당이나 충효당처럼 납도리이다. 소로받침은 없고 처마는 흘쳐마다. 한식 기와를 이었으며 팔작지붕이다. 사랑채의 방들에는 띠살창호를 달았고, 문지방 밑에는 머름동자를 세우고 廳板을 끼웠다. 사랑대청에는 띠살의 분합문을 달았다. 중문간의 원편도 사랑채와 그 양식이 같다.

단, 북촌택의 안채는 사랑채와 연속되어 있음에도 그 구조가 크게 다

르다. 안채의 기단은 장대석으로 처리되어 있고 그 위에 막돌초석을 놓은 다음 모기등을 세웠다. 그러나 안채 대청의 전면에 있는 세개 기둥은 두리기둥이다. 기둥머리에는 급면이 빗면을 이루었고, 굽받침이 없는 柱頭를 놓은 다음 창방을 걸었다. 소로받침을 두어서 굴도리의 장여를 받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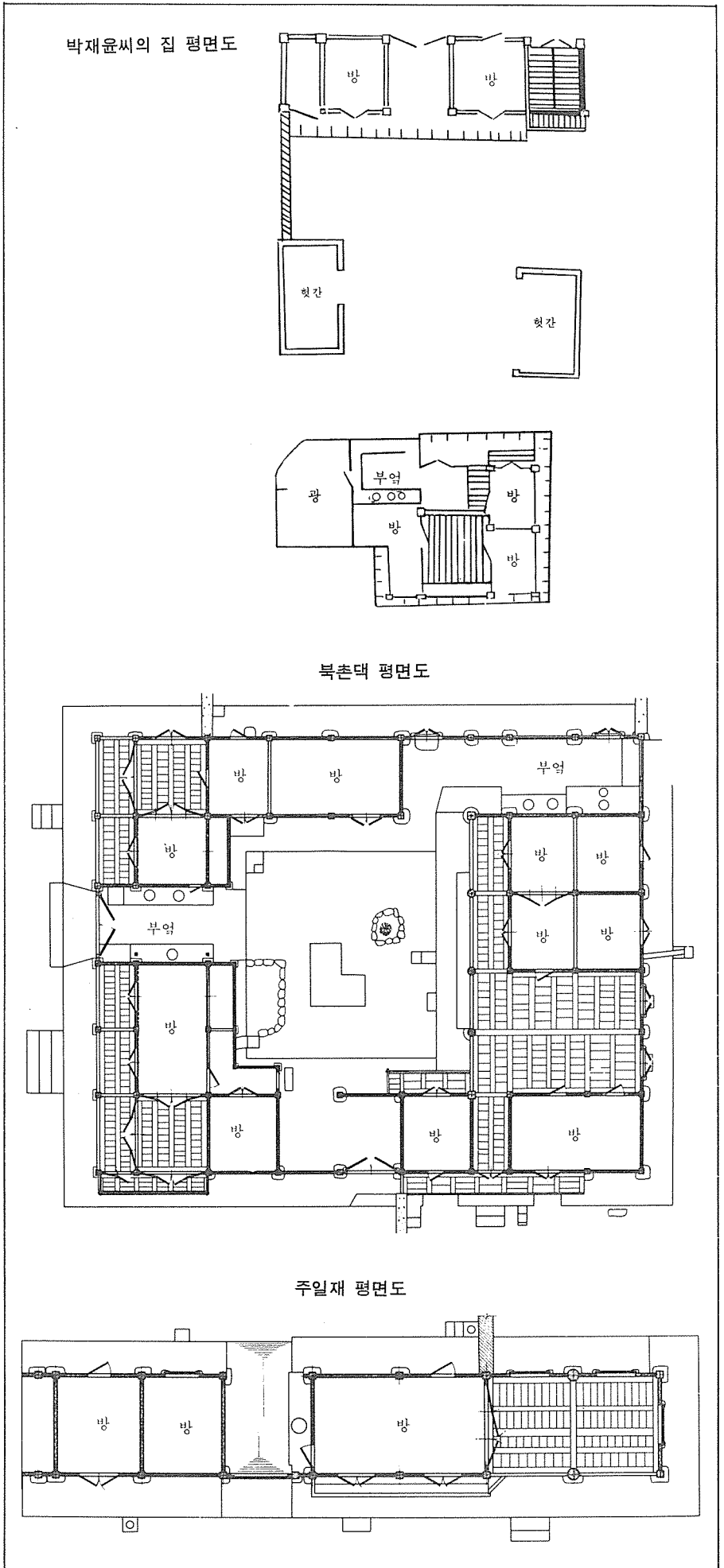
대들보머리는 보아지형식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翼工집이 아니다. 간살은 오랑구조로 판재로 동자기등을 삼았으며, 장여와 소로받침으로 굴도리의 장여를 받치게 했다. 이것으로 보아 북촌택의 안채는 사랑채 보다 한결 정성들인 깃새가 느껴진다. 안채의 방에는 떠살창호가, 그리고 부엌과 뒷면에는 판장문을 달았다. 처마는 훔쳐마이지만 지붕은 크게 합각이 형성되어 팔작지붕을 이루었다.

별당채는 기단이 四塊石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른층쌓기로 처리한 다음 다듬은 막돌초석에 네모 기둥을 세웠다. 이 기둥 가운데 정면 7개, 후면 7개, 중간 1개의 기둥은 모두 두리기둥이다. 도리는 굴도리로서 소로받침이 있고 처마는 훔쳐마이며 지붕은 역시 팔작지붕이다. 祠堂은 정면 3칸, 측면 한칸이지만 건물 자체나 환경 조성이 두드러지게 훌륭하다. 사당의 간살이 적은 것은 이 집이 비교적 支孫이어서 모신 神位가 많지 않은 데 연유한 것 같다.

장대석 기단 위에 네모뿔대의 다듬은 돌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이 세워졌다. 소로받침 없이 납도리를 받치고 있다. 처마는 훔쳐마,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참고로 밝혀 두면 북촌택은 중요 민속자료 84호다.

●主一齋— 충효당 오른편에 자리 잡고 있다. 중요 민속자료 91호인 이 가옥은 사랑채·안채·사당이 각각 독립되어 있다. 정남향에 전체 대지 모양은 남쪽 저변이 좀 길고 북쪽이 짧게 되어 있어서 사다리꼴이다. 사랑채는 一자형으로 정면 4칸에 측면 한칸이다. 절반이 사랑방이며 절반이 대청이다.

사랑채는 사이에 중문을 두고 아랫채와 연결되어 있다. 아랫채는 방 2칸에 불때는 아궁이가 붙어 있다. 안채는 중문을 통하여 출입하도록 꾸며



졌다. 그 기본 형태는 一자꼴이지만 오른쪽인 동쪽에 광이 붙어 있어 얼핏 7자로 보이기도 한다. 동쪽에 한 칸 크기의 방 두개가 겹으로 꾸며졌으며, 그 다음이 대청이다.

대청은 L자를 거꾸로 한 모양으로 2칸 장방인 안방 앞을 꺾어 돈다. 안방 다음, 곧 서쪽 끝에 부엌이 있다.

주일재의 구조——사랑채 기단은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이 집의 보수는 근년에 이루어진 것 같다. 기단의 높이가 다른 가옥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도 주목된다. 막돌초석을 놓고 모기등을 세웠다. 사랑채 대청 기둥 가운데 전후 2개는 두리기둥이다.

도리는 남도리이며 소로받침은 없다. 처마는 홑처마이고 지붕은 한식기와를 써서 이은 맞배지붕이다. 방에는 떠살창호를 달았고 방과 대청 사이에는 네 짝의 분합문이 있다. 대청 후면은 판장문이며 대청 전면에는 아무런 창호가 없다.

안채는 막돌허튼층 기단에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다. 막돌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이 세워졌다. 처마는 홑처마에 팔작지붕이다. 사당은 사방한칸으로 규모가 매우 단출하다. 굴도리집이며 맞배지붕에 附緣이 없다.

이 사당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랍집이 있다. 가랍집은 초가로 7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방과 부엌·광·헛간 등을 갖추었다.

## 2. 亭閣과 書堂들

하회는 대저 거촌답게 정각과 서당도 상당수에 달한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오토의 세월 속에 자취를 감춘 것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晚松亭이다.

본래 이 정자는 하회마을 앞 소나무 숲 속에 세워져 있었다. 그것이 을축년의 대홍수에 휩쓸려 완전히 유실되어 버렸다. 또한 하회를 말하는 경우 우리는 屏山書院을 잇을 수 없다. 병산서원은 그 규모나 명성으로 영남 북부에서는 퇴계 이황을 기념하는 도산서원에 버금간다. 그러나 이 서원에 관한 기술은 당연히 상당한 지면이 따로 마련되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 여기서는 하회

의 정각과 서당으로 다섯개를 들고자 한다. 謙岩亭과 玉淵亭·遠志精舍·賓淵精舍·花川書堂 등이 그것이다.

● 謙岩亭——하회앞 芙蓉臺 밑에는 강이 깊은 소(沼)를 이루고 있다. 이 소를 마을 사람들은 賓淵이라고 부른다. 겸암정은 부용대의 오른쪽, 빈연의 북쪽 절벽 위에 세워져 있다. 건물은 크게 바깥채와 안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측면과 후면 둘레에 담장이 둘러져 있는데 그 모양은 대체로 발달형이다.

바깥채는 一자모양으로 정면이 4칸, 측면이 2칸으로 되어 있다. 그 중앙에 정면 2칸, 측면 2칸의 대청이 놓여 있다. 그리고 좌우에 각각 같은 크기의 방을 두었다. 방과 대청 전면은 좁은 툇마루다. 특히 동쪽 방은 크기가 한칸이고 나머지 한칸은 그 앞에 꾸며진 마루가 차지한다. 안채는 7자형으로 부엌 2칸·안방 3칸·대청 4칸이며, 거기에 건넌방이 남향으로 늘어서 있다. 건넌방 안쪽으로 한칸 반 크기의 방과 한칸되는 마루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두 건물 가운데 바깥채가 겸암정이다.

겸암정에는 퇴계의 글씨로 된 판액이 높다랗게 걸려 있다. 이 집은 장대석 바른층 쌓기의 높은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았고 전면에는 두리기둥이 쓰였다. 간살은 오량이며 홑처마에 팔작지붕이다. 마루에는 계자각 난간을 둘렀다.

● 玉淵亭——겸암정 오른쪽에 있는 정자다. 화천이 하회마을을 포주박 모양으로 깊숙히 안고 흐르다가 다시 크게 방향을 바꾸는 곳에 소(沼)가 있다. 이것을 마을 사람들은 玉淵이라고 한다. 그 맑고 푸른 물빛을 따서 붙여진 호칭인 것 같다.

옥연정은 이 옥소의 남쪽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 정자는 그 주인이 西厓이며 그 나이 45세 때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한다. 이 건물은 문간채와 바깥채·안채 및 별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간채는 一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왼편 남쪽에 측간과 문이, 그리고 그 옆에 광들이 있다. 바깥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크기로 그 가운데 4칸의 대청이 꾸며져 있다. 대청 좌우가 각각 2칸 크기의 방들이다.

안채는 일반 주택과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一자형의 구조에 부엌이 중앙에 있고 방이 좌우로 놓여져 있는 것이다. 북쪽 방은 동서향의 2칸 크기로 앞뒤로 반칸 폭의 툇마루를 달았다. 그리고 남쪽 방은 앞쪽에 툇마루가 놓여 있는 것이다.

별당채는 정면 3칸에 측면이 2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쪽에 2칸 반쪽의 방이, 그리고 나머지가 대청이다. 바깥채와 안채·별당 등은 모두 한식 기와에 팔작지붕들이다. 기둥들은 네모기둥으로 두리기둥이 없다. 이정자 역시 울창한 숲에 싸여서 훌륭한 조망을 가지고 있다.

● 遠志精舍——마을 북쪽 부용대 對岸에 위치해 있다. 『永嘉誌』를 보면 그 방향이 화천 건너에 있는 遠志山 쪽으로 놓여있다. 원지산이란 이름은 약재로 쓰이는 원지풀이 많은데서 유래한다. 그리고 遠志亭이란 이름 자체도 거기서 온 것 같다. 이 건물은 조선왕조 중기의 건축양식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 건물 가운데 하나다. 精舍와 樓閣 등 두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정사는 정면이 3칸, 측면이 한칸 반으로 되어 있다. 대청 한칸에 2칸짜리 방이 있고 앞면에 반칸 폭의 툇마루가 꾸며졌다.

누각은 중층, 곧 2층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기단에서 다음층까지 기둥들만이 서 있다. 기단 부분에서 2층으로는 계단을 두었다. 이 계단을 이용하여 누에 오르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누는 정방형 4칸의 평면 구성이다. 또한 정사의 처마는 홑처마에 맞배지붕이며 한식기와에 박공에는 풍판을 달아 놓았다.

기둥은 네모기둥이지만 정면의 4개는 두리로 되어 있다. 누각은 장대석 기단에 막돌초석이 놓여 있다. 1층의 기둥은 다각형의 것이 쓰여져 있다. 미루어 이 건물의 풍류라던가 멋을 고려에 넣고 설계된 점이 심분 포착된다.

한편 이 건물 2층 기둥은 두리로 처리되어 있다. 또한 2층에서는 기둥머리에 주두가 없으며 익공으로 기둥머리와 주두를 결속했다. 창방 위에는 소로를 놓아서 장여를 바쳤고, 이 장여가 굴도리를 받친 형식이다. 2층 둘레에는 계자각 난간이

있으며 천장은 연등천장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우물천장이 가설되었다. 이 건물도 처마는 흘처마에 환식기와가 이어져 있다. 그러나 지붕은 정사 건물과 달라서 팔작지붕이다. 이 누각에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았다.

●花川書堂——부용대 동쪽 강변에서 얼마 떨어진 자리에 세워져 있다. 謙岩을 받들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본래는 書院이었다. 화천서당 전체는 나지막한 토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안에 서당은 본건물과 살림채 등 두개의 건물로 이루어졌다.

본 건물은 一자 모양에 정면 5칸, 측면 2칸 반 크기다. 중앙이 대청인데 그 크기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이른 바 6칸 대청이다. 그리고 대청 좌우에 정면 한칸, 측면 2칸의 온돌방이 대청으로 놓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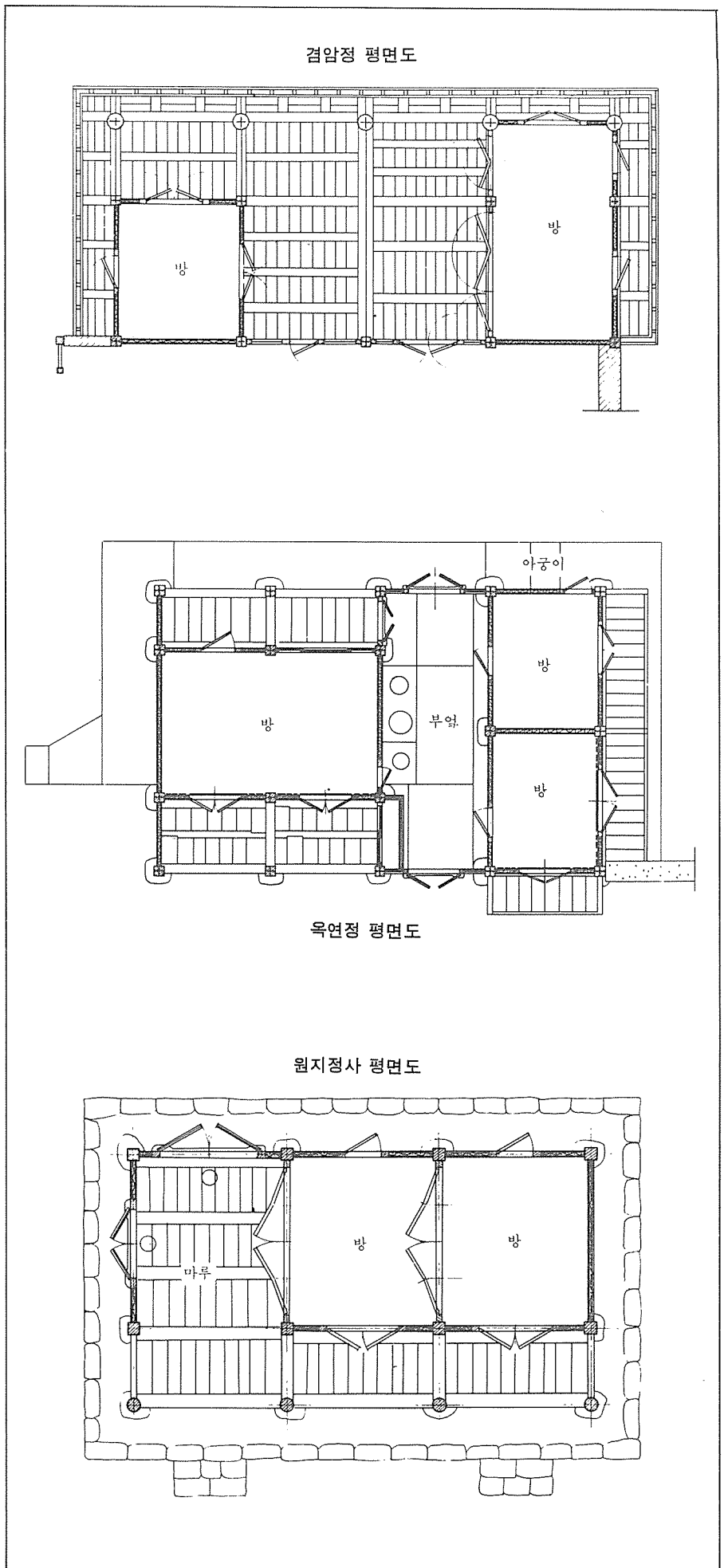
방과 대청 앞에 반칸 폭의 뒷마루가 달려 있다. 살림채는 ㄷ자 형으로 남쪽에 부엌이 있고, 그 다음이 역시 6칸의 대청이다. 그 옆이 두칸 크기의 살림방이며, 그 앞에 함실과 광이 있다. 또 부엌 앞에도 광이 있어 전체적으로 좌우 대청이 되는 ㄷ자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화천서당 본건물과 살림채 사이에는 별도로 담장이 쳐져 있다. 그리하여 본건물에서 살림채를 가려면 동쪽 대문을 나서서 안채 대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아마도 살림채와 곧 바로 통하는 문이 있는 경우 일어날지 모르는 잡념을 경계한 나머지의 설계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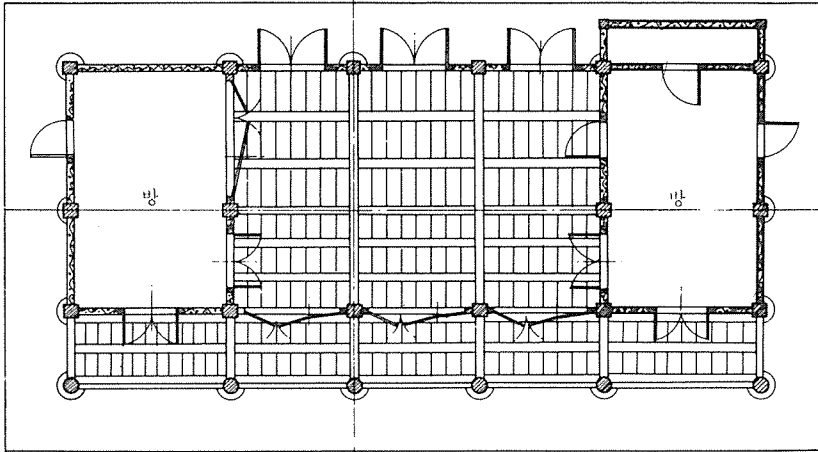
화천서당 본 건물은 흘처마에 팔작지붕이다. 기단은 장대석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쌓아올린 높직한 것이다. 그 위에 원형의 주초를 만든 다음 주추가 놓여져 있고, 다시 그 위에 두리 기둥이 세워졌다. 살림채는 네모 기둥이며 흘처마에 맞배지붕이다.

●賓淵精舍——마을 북쪽 부용대 맞은편 물기슭에 세워진 정자다. 원지정사보다 좀더 서쪽이며, 또 강쪽에 가깝다. 화천의 흐름과 부용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북동향이 되어 있다. 특히 마을에 연접해 지어진 까닭인지 이 정자는 살림집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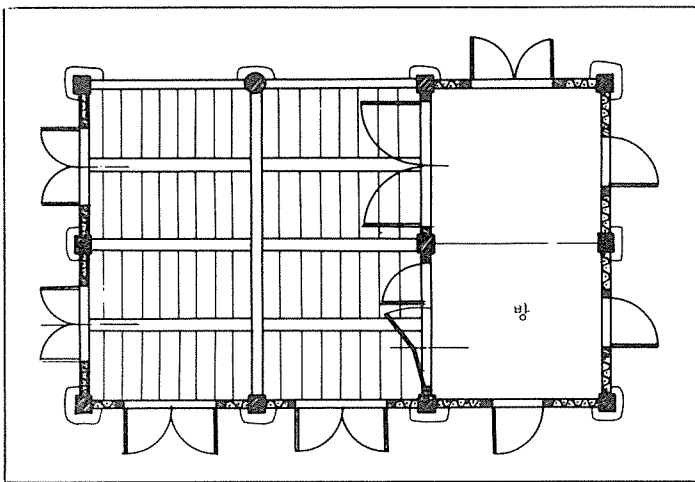
장방형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흘처마 팔작지붕이다. 기둥은 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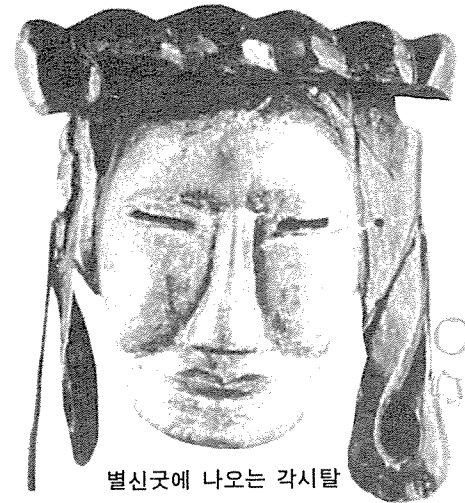




화천서당 평면도



빈연정사 평면도



별신굿에 나오는 각시탈

네모로 되어 있지만 대청 정면의 중앙 기둥만은 두리다. 남도리는 소로 받침이 없으며 장여가 그것을 받친다. 방에는 떠살창호, 그리고 방과 대청 사이에는 네짝의 복합문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대청정면에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았다. 담장은 토담이며 그 위에 한식기와를 이었다. 기단이 큰 크리트로 된 것을 보면 근간에 보수가 이루어진 것 같다.

### 3. 하회의 民俗

— 別神굿과 줄불놀이 —

하회가 지너온 문화 유산 가운데 우리는 두가지 민속놀이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 하나가 별신굿이며, 다른 하나는 줄불놀이이다. 이 마을에서 행해지는 별신굿은 그 탈의 모양부터가 아주 독특하다. 그리고 내용이라든가 演戲방식 역시 어느 경우와 다르게 특징적인 것이다.

또한 줄불놀이는 큰 가람, 웅장한 규모의 벼랑을 지닌 對岸을 안고 있는 하회의 입지조건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이 두 놀이는 하회만의 몫이다.

하회의 별신굿은 12월 그믐날부터 그 막이 열린다. 이 때부터 洞祀에는 금색이 쳐지고 黃土를 뿌린다. 황토는 마을을 정화하는 의식의 표시다. 또한 별신굿의 祭主를 山主라고 하는



하회 별신굿. 양반이 부네와 어울러 희롱하는 장면

데, 산주는 우선 부정을 타지않을 목수를 골라 인근 산에서 서낭대를 만들게 한다. 이와 동시에 동민 전원에게 肉食이 금해진다.

祭需가 마련되고 산주가 깡대들을 지명하면 별신굿의 준비가 이루어진 것이다. 정월 초이튿날 아침부터 제사가 시작된다. 제의는 상당에서 시작되는데 이 때는 서낭당 앞에 제수를 마련하고 높이가 3~4장(丈)에 달하는 서낭대를 세운다. 서낭대 옆에는 높이 2~3장(丈)의 성춧대가 동시에 세워지고 강신을 비는 것으로 별신제의 막이 오르는 것이다.

서낭대에는 홍·백·황·청·록 등 다섯가지 빛깔의 포목을 드리우고 그 꼭대기에 당방울을 달았다. 신이 내려 방울이 울리면 강신한 서낭대를 메고 성춧대를 받는 가운데 제주 곧, 산주와 광대의 행렬이 하당과 삼신당

을 다녀서 舊洞舍 앞에 이른다. 구동사 앞에 서낭대가 세워지고 신(神)방울이 울리면 별신굿 놀이가 시작되는 것이다.

별신굿은 모두 아홉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여러 마당에는 서로 조금씩 다른 연희자들인 각시·중·초랭이·선비·이매·부네·떡다리할미·별채들이 탈바가지들을 쓰고 출연한다.

별신굿놀이는 民衆演戲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새삼 밝힐 것도 없이 河回假面劇의 내용 가운데에는 신랄하게 양반·선비·승녀들을 야유·풍자한 것이 있다. 또한 별신굿에서 광대는 전원이 하회 柳씨가 아닌 他姓은 대개가 더부살이거나 소작인들이었다. 그러니까 별신굿은 그 내용과 演戲者의 의식들로 보아 반지배계급·상민의 예술에 속하는 셈이다.

하회의 줄불놀이는 그 의식 내용으로 보아 별신굿과 좋은 대조가 된다.

우선 이 놀이의 주역은 풍산 유씨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 놀이의 서막은 芙蓉臺 아래서 베풀어진 詩會였다. 이 놀이를 위해서는 줄불과 달갈불·배 등이 동원되었고 부용대와 대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다.

먼저 ‘줄불’은 뽕나무숫을 갈아서 만든 탄가루에 소금을 섞어서 이루어진다. 이 연소재들을 창호지로 붙인 좁고 긴 봉투에 넣는다. 그리고는 다시 그것을 몇개의 매듭으로 묶은 다음 긴 새끼줄에 매어다는 것이다.

‘달갈불’은 달갈껍질들을 모아 두었다가 일부만을 잘라내고 그 속에 피마자 기름을 넣는다. 그리고는 거기에 솜심지를 달고 불을 켜다. 이 불을 짚으로 만든 꼬아리에 올려 놓은 것이 달갈불이다.

새끼에 엮어진 줄불은 옥연정에서 화천서당까지 그리고 부용대 정상에서 그 건너 만송종까지 두 줄로 매어 단다. 그러니까 그 길이들은 몇 백미터에 달하는 것이다. 줄에 매단 숯봉지에는 썩으로 불을 붙인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송진으로 만든 촛불이 켜진다. 줄불이 켜지면 그와 동시에 강 위에는 그 상류에서 흘러 보내는 달갈불이 뜬다. 줄불은 한 매듭이 타거나 소금이 타오를 때마다 爆竹 터지는 소리를 낸다. 그리고 강 위에 떠서 흐르는 달갈불들 역시 다양한 문양으로 강물을 아로 새긴다.

이 줄불놀이는 落花 놀이로 그 절정을 이룬다. 낙화놀이란 부용대에서 숯가에 불을 붙여서 던지는 의식이다. 이때 부용대와 그 대안일대는 대낮처럼 밝아지며, 또 놀이에 참가한 사람들과 관중들 모두가 환호성을 올린다고 한다. 이 줄불놀이는 그에 쓰는 비용부터가 만만치 않았다. 거기에 강을 낀 마을의 입지조건이 필요했고, 또 높은 벼랑과 그 대안을 이룬 백사장 등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놀이 역시 하회만이 가능한 행사로 보인다. 다시 한번 이 마을이 자연과 인간의 情緒·문화가 交織해 낸 한편의 교향곡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資料提供：朴勇煥建築計劃研究室)